

## 디다케 (열두 사도의 가르침)

디다케 혹은 열두 사도의 가르침은 19세기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이다. 초대 기독교 문학에서 디다케나 유사한 제목을 가진 책에 대한 여러 번의 언급이 있었고, 그 제목을 사용하였을만한 문서, 특히 사도헌장과 교회령에 대한 상대적 비평주의 방법을 사용하여 디다케의 특징들을 개략적으로 재구성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그 것은 1875년에 브레니어스가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예루살렘의 주교 도서관에서 클레멘트 I, II서를 담고 C라고 인용되는 사본에서 발견 될 때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사본과 번역본이 있는 이 문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다. 그러나 그 문서가 어느 정도나 사실대로 원래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지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브레니어스의 발견 이후로 우리 디다케의 일부 혹은 동일 계통의 라틴어판인 두 개의 복사본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원 “가르침”의 사본으로 최소한 네 개의 권위 있는 문서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 (1) 브레니아스 디다케= C
- (2) 라틴어판
- (3) “교회칙령”(보통 KO로 인용)
- (4) “사도헌장” vii권

이 모든 권위 있는 문서<sup>1)</sup>는 원“가르침”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들 상호관계는 분명치 않다. 즉, 브레니아스 디다케, 그리고 사도헌장이 그 “가르침”의 2차 개정판을 대표하고, 라틴판인 KO와 재구성한 “제5의 자료”가 비록 상대적으로 그렇게 순수한 형태는 아니어도 1차 개정판을 대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문제는 디다케의 Funk본 및 하르낙의 *Geschite der altchristlichen Literatur* 에서 가장 잘 연구할 수 있다.

이외에 추가적 의문이 있다. 디다케나 “가르침” 그 자체가 합성문서임은 분명하고, 첫 번째 부분은 항상 두 길로 알려져 있다. 간단히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이 바나바 서신의 마지막 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바나바스가 디다케(또는 원“가르침”)를 사용했는지 또는 디다케가 바나바를 사용했는지 또는 둘이 공통자료를 사용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문제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아마 대다수의 학자들은 마지막 견해로 기울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공통자료

---

1) 하르낙은 아마 정확하게 다른 문서를 마찬가지로 제시한다. 그의 *Geschite der altchristlichen Literatur* , pp.86 ff.를 보라

즉, 원래의 “두 길”이 유대의 기독교 이전 문서로서 요리문답 교육을 목표로 특히 개종자들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 복합문서의 연대는 매우 모호하다. 원래의 “두 길”은 1세기 초이거나 그 이전일 것이다. 원 “가르침”은 아마 2세기 초엽이나 그 이전도 가능하고 C로 표시되는 “가르침”의 2차 개정판은 2세기 이후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비록 C문서 안의 몇 구절들이 사본상의 첨가 사실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현 상태로는 디다케를 교회교육의 매뉴얼로 볼 수도 있다. 첫째 부분인 “두 길”은 기독교인의 행동원칙에 대하여 기술한 것으로 세례 받기 전의 예비학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것들이다(1~6장). 다음에는 기독교 예배, 세례, 금식, 성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구별 및 대우<sup>1)</sup>, 일요일 예배, 주교와 집사(7~15장)의 관제에 대한 일련의 교훈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이 기독교인들을 경고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첨가된다.

다음 페이지에 주어진 사본은 C문서에 관한 것이다(렌텔 해리스 박사가 사진팩시밀리로 출판). 극소수의 필수적 교정(명백한 오류는 제외)을 페이지 말미에 표시하였다.

---

1) 디다케에 나오는 사도는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설교에 종사하는 영감된 교사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미개종자에게 설교하는 교사들이다. 현재에는 바로 선교사로 불리는 자들이다.

## 디다케(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 12사도가 행한 주님의 이방인에 대한 가르침

#### I

1. 두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며, 이 두 길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2. 생명의 길은 이러하다. “첫째, 너희는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즉, 너 자신에 대하여 행치 않는 것을 타인에게 행치 말지니라.”<sup>1)</sup>

3. 이 말들의 가르침은 이러하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의 대적을 위하여 기도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금식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어찌 칭찬 받을 수 있겠느냐? 이방인도 그러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아니하리라.” 4. “육적인 것”과 육신의 “정욕”을 삼가라. “어떤 이가 너희 오른 뺨을 치거든 다른 뺨을 돌리

---

1) 이것이 소위 황금률의 부정형이다. 몇 개의 사본에서 발견되는데 사도의 명령(행15:28) 및 다양한 형태로 유대와 초기 기독교 문학에서 접할 수 있다.

라. 그리하면 네가 완전하여 지리라. 만일 어떤 이가 너에게 1마일을 가자고 강권하거든 2마일을 가라. 만일 어떤 이가 너의 겹옷을 가져가거든 그에게 속옷도 주어라. 만일 어떤 이가 너의 것을 뺏어가거든 - 가능하지 않다 해도<sup>1)</sup> 거절하지 말라. 5.너에게 원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말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받은 선물에서 모든 이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령대로 주는 자는 복되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받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만일 어떤 이가 궁핍하여 도움을 받으면 죄가 없거니와 부족함이 없어도 받는 사람은 받은 이유와 받은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감옥에 갇혀 所爲를 조사받고 마지막 남은 것을 다 갚기 까지는 그 곳에서 나오지 못할지니라. 6.이에 관하여는 “너희 부조를 누구에게 주는지 알 때까지 네 손에 스며들게 하라”는 말이 있다.

## II

1.그러나 그 가르침의 두 번째 명령은 이 것이라. 2.너는 살인을 도무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라. 납색하지 말라. 사통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마술을 부리지 말라. 최음제를 먹지 말라. 또한 영아살인을

---

1) 헬라어 글자 그대로는 “왜냐하면 네가 가능하지 않을 지라도”인데 이는 의미가 닿지 않는다. 그리고, 비록 교정이 어렵지만 그 의미는 번역한대로 해야만 한다. 만일 진정으로 전체구성이 경술한 수식이 아니라면 텍스트에 실수로 삽입된 것이다.

범치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3. 위증죄를 범치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악을 품지 말라. 4.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두 입술의 말을 하지 말라. 두 입술의 말은 사망의 덫이기 때문이니라. 5. 너의 은사는 거짓되거나 공허한 것이 되지 말고 행위에 완전하라. 6. 탐욕을 부리지 말고 샀을 과도히 요구치 말고 위선자가 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계교를 피하지 말라. 7. 아무도 미워하지 말되 책망하라<sup>1)</sup>.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고 네 자신의 목숨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라.

### III

1. 나의 자녀여 모든 악인과 악인을 닮은 자를 피하라. 2. 자고하지 말라. 교만은 살인에 이르느니라. 시기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며 흥분하지 말라. 이런 것들로부터 살인이 좇아나느니라. 3. 나의 자녀여! 음심을 품지 말라. 음욕은 사통에 이르게 하느니라. 비천한 말을 입에 담지 말며 눈을 치켜뜨지 말지니라. 이런 것에서 간음이 좇아나느니라. 4. 나의 자녀여! 징조를 무시하지 말라. 이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느니라. 마법을 부리지 말고 점성가가 되지 말며 마술가가 되지 말라. 이런 일 보기를 바라지도 말지니라. 그들로부터 우상숭배가 생겨나느니라. 5. 자녀여!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 거짓말은 절도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니라. 돈을 사랑하지도 말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

---

1) 유다서 22절과 비교할 때 혹자는 “그리고 사람에게 어진 마음을 품으라”는 구절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으로부터 도적질이 일어나느니라. 6.자녀여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중상모략에 이르게 하느니라. 완고한 자가 되지 말고 악을 생각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비방이 생겨나느니라. 7.다만 온유하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느니라. 8.오래 고통당하고 자비로우며 음흉하지 않고 조용하며 선하며 남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라. 9.네 자신을 높이지 말고 네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할지니라. 교만한 자와 짝하지 말며 의롭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할지니라. 10.너에게 일어난 일을 선한 것으로 받으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니라.

#### IV

1.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자를 늘 기억하라. 그를 주님과 같이 공경할 것은 주님의 성품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니라. 2.그리고 너는 말마다 성인들의 옆에 있기를 구하고 그들의 말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라. 3.너는 분열을 바라지 말고 다투는 자를 화해시켜라. 너는 의로운 판단을 내리고 허물을 책망할 때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지니라. 4.너는 어찌 됐든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5.받으려고 손을 뻗는 자가 되지 말라. 다만 주게 될 때에는 손을 오므리라. 6. 너의 손으로 얻은 것 중에서 네 죄에 대한 속전을 바칠

지니라. 7.너는 주는데 주저하지 말며 불평하지도 말라. 상급을 치르시는 선한 주를 네가 앎이니라. 8.너는 궁핍한 자를 돌려보내지 말며 네 형제와 모든 것을 나눌지니라. 그리고 그 것이 네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 네가 쇠하지 않을 것을 함께 나눌진대 하물며 쇠할 것에 있어서이랴?

9.너는 너의 아들이나 딸에게 너의 손을 억제하지 말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가르치라. 10.너희는 노예나 수종자를 가혹하게 명하지 말라. 그 들은 동일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데, 너와 네 수하 모두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마지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따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비하신 자를 부르러 오셨음이니라. 11.노예 된 너희여! 너희는 주인에게 순복하기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듯 존경과 두려움으로 하라.

12.너희는 모든 가식과 주께 기쁨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미워하라. 13.너는 주의 명령을 저버리지 말며 너희가 받은 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므로 지키라. 14.너는 공회에서 너의 허물을 고하여 악한 양심으로 기도에 임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생명의 그 길이니라.

## V

1.그러나 사망의 길은 이러하니 무엇보다 더 그 길은 사악하고 저주, 살인, 간음, 음심, 사통, 절도, 우상숭배, 마술, 마법, 강도, 거짓증



언, 위선, 두 마음, 사기, 자궁, 악의 ,완고, 탐욕, 욕설, 시기, 무례, 교만, 자랑으로 가득 찼느니라. 2.선한 자를 핍박하는 자, 진리를 싫어하는 자, 거짓말을 사랑하는 자, 의의 상급을 알지 못하고 선에 충실하지 않고 공의로운 판단을 고수하지 않고 선함이 아니라 악을 위하여 밤을 지새우며 온유함과 인내로부터 동떨어진 자, 헛된 것을 사랑하며, 상급을 뒤쫓으며 가난한 자에게 사나우며, 압박 받는 자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하지 않고 자신들을 만드신 분을 알지 못하고 어린 아이를 살해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타락시키고 빈핍한 자를 돌려보내고 곤고한 자를 압박하고 부한 자를 옹호하고 가난한 자에게 불공정하게 심판하며 온전히 죄악에 물든 자. 자녀들아! 이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함을 받을지어다.

## VI

1.어느 누구도 이 가르침의 길로부터 너를 벗어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는 너를 하나님이 없이 가르치기 때문임이니라. 2.만일 너희가 주님의 모든 명예를 감당하면 너희는 완전하여 질 것이요. 만일 네가 감당치 못 할지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3.음식에 관하여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취하되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엄히 금할지니라. 그 것은 죽은 신을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임이니라.

## VII

1.세례에 관하여는 이렇게 베풀지니라. 먼저 모든 것들을 먼저 해보고 , “흐르는 물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2.만일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에서 세례를 행하라. 그리고 만일 차가운 물에서 할 수 없으면 따뜻한 물에서 행할지니라. 3.만일 아무 것도 없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세 번 물을 부을지니라. 4.세례 전에 세례 베푸는 자와 세례 받을 자는 금식하게 하고 다른 자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할지니라. 너희는 세례 받을 자로 하루 이틀 전에 금식하게 할지니라.

## VIII

1.금식은 위선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나 너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기 때문임이니라. 2.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주가 자신의 복음에서 명한 바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sup>1)</sup>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3.이같이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라.

---

1) 이는 ἐπιούσιον의 전통적 번역이다. 그러나 그 것이 정확한가에 대하여는 전혀 확실치 않다. 그 말은 처음부터 수수께끼였다. 그 의미는 분명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 복음에 관한 다른 훌륭한 주석을 더 참고하라.

## IX

1.그리고 성찬에 관하여 성찬은 이렇게 지킬지니라. 2.먼저 잔에 관하여는 “우리 아버지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의 자손 다윗의 거룩한 포도나무를 당신의 자녀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셨음이니이다. 당신께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3.편 떡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여!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생명과 지식을 당신의 자녀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이니이다. 당신께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4.편 떡이 산에 뿌려졌다가 모아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가 땅 끝에서부터 모아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능력임이니이다. 5.주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 외에는 성찬을 먹거나 마시지 말게 할지니라. 이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 X

1.너희는 음식을 잘 먹고 난 후에 이렇게 감사하라. 2.오 거룩한 아버지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장막을 친 거룩한

이름과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지식과 믿음과 영생 때문이니이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3.전능하신 주 당신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만유를 지으시고 사람으로 기뻐하도록 음식과 마실 것을 주심으로써 만유가 당신께 감사케 하려 하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영적인 음식과 음료와 영원한 빛으로 축복하셨나이다. 4.무엇보다 더 주께서 권능이 있으시니 당신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5.주여!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사 모든 악으로부터 건지시고 당신의 사랑에서 완전케 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라에 사방으로부터 거룩한 채로 모으소서.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께 있나이다. 6.은혜로 임하게 하사 이 세상으로 지나가게 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하나님. 사람이 거룩하면 오게 하시고 거룩하지 않으면 회개케 하소서. 마란 아타<sup>1)</sup>, 아멘. 7. 그러나 선지자들이 성찬을 뜻대로 하도록 허용하라.

## XI

1.와서 너희에게 前述한 것을 가르치는 자를 용납하라. 2.그러나 만일 그 선생 자신이 타락하여 다른 교리를 가르쳐 이런 것들을 파괴하려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의 가르침이 의와 하나님의 지식을 크게 한다면 그 사람을 주로 용납하라.

---

1) 우리 주여! 오소서! 를 의미하는 아람어 번역.

3.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하여는 복음의 규례<sup>1)</sup>대로 행하라. 4.너를 찾아오는 모든 사도들을 주로 용납하라. 5.그러나 사도들로 하루 이상 머무르게 하지 말라. 필요하다면 이틀 이상 머무르게 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사흘을 머문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6.사도가 떠나갈 때에 저녁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먹을 음식 외에는 아무것도 받게 하지 말라. 그러나 그가 돈을 달라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7.영으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도 시험하거나 하지 말라. 무슨 죄든 사함 받으나 이 죄는 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임이니라. 8.그러나 만일 그가 주의 행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영으로 말하여도 선지자는 아니니라. 그의 행실로부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느니라. 9.영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선지자는 대접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니라. 10.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가 그가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모두 거짓 선지자니라. 11.그러나 시험을 당하여도 진리에 서있는 어떤 선지자가 비록 그가 교회의 세상적 신비<sup>2)</sup>를 행하여도, 만일 자신이 행하는 것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너희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며 옛날의 선지자들도 그리하였기 때문이니라. 12.그러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누구든지 금전을 요구하면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가 다른 곤궁에 빠진 자를 대신하여 주라하면 아무도 그를 판단하지 말게 하라.

---

1) 저자가 언급한 규례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 이 구절은 만족스럽게 설명된 적이 없다. 그 것은 추측컨대, 만일 옛날 선지자들에 대한 아래의 언급이 호세아에 대한 암시라면(호1:2) 여러 선지자 중에 예배, 가르침의 예시 및 의심스러운 예절의 형식을 소개하기 위한 하나의 경향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 XII

1.주 이름으로 오는 자마다 용납케 하라. 그러나 너희가 그를 시험할 때에 그를 알게 될 것은, 너희가 옳고 그름<sup>1)</sup>에 대하여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2.오는 자가 여행자이면 할 수 있는 한 그를 도우라. 그러나 그는 너에게 이틀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흘 이상 유하지 못할지니라. 3.그러나 만일 그가 너희 중에 정주하길 원하고 그가 재주가 있으면 자기의 생업을 위하여 일하게 하라. 4.그러나 그가 아무 재주가 없으면 너희가 이해하는 대로 그에게 공급하여 아무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너희 중에 빈둥거리면서 살게 하지 말지니라. 5.그러나 만일 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파는 것이니 그런 류를 경계할지니라.

## XIII

1.그러나 너희 중에 정주하길 원하는 모든 참된 선지자는 그의 “식물을 공제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2.이처럼 참된 교사는 일꾼처럼 자신이 자기의 식물을 공제받을 자격이 있느니라. 3.그러므로 너는 포도즙틀과 타작마당 및 소떼와 양떼의 첫 열매를 취하여다가 선지자들에게 첫 열매로 드릴지니라. 그들은 너의 대제사장임이니라. 4.만일 선지자가 없으면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5.네가 빵을 만들면 첫 열매를 취하여 명령에 따라 드릴지니라. 6.이처럼 네가 포도주와 기름 항아리를 열 때에 그 첫 열매를 취하여 선지자들에게 드릴지니라. 7.돈과 의복 및 너의 모든 소유 중에서 첫 열매를 취하여 네가 가장 좋게 여기는 대로 명령에 따라 드릴지니라.

---

1) 문자적으로 “좌우(양면적) 이해”

#### XIV

1. 주의 날에는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성찬을 시행하라. 너희의 과실을 고백한 후에라야 너희의 예물이 깨끗하게 될 것이니라. 2.그러나 자기 동료와 싸우는 자는 누구든지 화목한 이후에라야 모임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 때에 너희의 희생이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3.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바이니 “어떤 장소와 시간에도 나에게 순전한 희생을 바치라. 나는 위대한 왕이기 때문임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리고 나의 이름은 이방 중에 기이한 것이기 때문임이니라”.

#### XV

1.그러므로 너희는 주께 합당하고 온유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신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교구장과 집사로 임명하라. 그들은 또한 너를 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임이니라. 2.그러므로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은 선지자와 교사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임이니라.

3.그리고 서로를 꾸짖되 분노로 하지 말고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화로 하라. 그리고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칠 사람과는 말하게 하지 말거나 그가 뉘우칠 때까지 너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할 것이니라. 4.너의 기도와 구제와 모든 행위를 우리 주의 복음에서 본 바와 같이 행하라.

## XVI

1.너의 삶을 돌아보라. 너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고 허리를 풀지 말고 준비하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를 모르기 때문임이니라. 2.그러나 부지런히 함께 모여 너희 영혼에 유익한 것을 구하라. 만일 마지막 때에 완전한 자로 드러나지 않으면 너의 모든 믿음생활의 시간들이 네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임이니라. 3.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와 타락케 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며 양이 늑대로 변하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어 질 것임이니라. 4.무법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반하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속이는 자로 드러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땅은 그의 손에 넘겨져 그는 창세 이래로 있어본 적이 없는 불법을 범하게 될 것이니라. 5.인류의 창조가 불시험을 받고 많은 이들이 죄를 범하여 실족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은 저주 자체<sup>1)</sup>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라. 6.그리고 다음에 진리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니라. 먼저 표적이 하늘에 전개되고 다음에 트럼펫 소리와 셋째로 죽은 자의 부활의 표적이 전개된다. 7.그러나 죽은 자 중에 모두가 아니라 “주가 오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와 함께 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8.그 때 그 세상은 주께서 하늘의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볼 것이다.

---

1) 그 의미는 모호하다. 그러나 교리의 초기 문학양식에 각 저주는 한 편으로 구원에 이르는 대칭력의 요소를 내포하는 다른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다케의 렌텔 해리스판에 있는 제목에 관한 귀중하고 긴 주석이 있다.